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데리는 어린 나이에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소에서 운영되는 성경학교에 다니는 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받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중남미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만연한 가정 폭력과 사회적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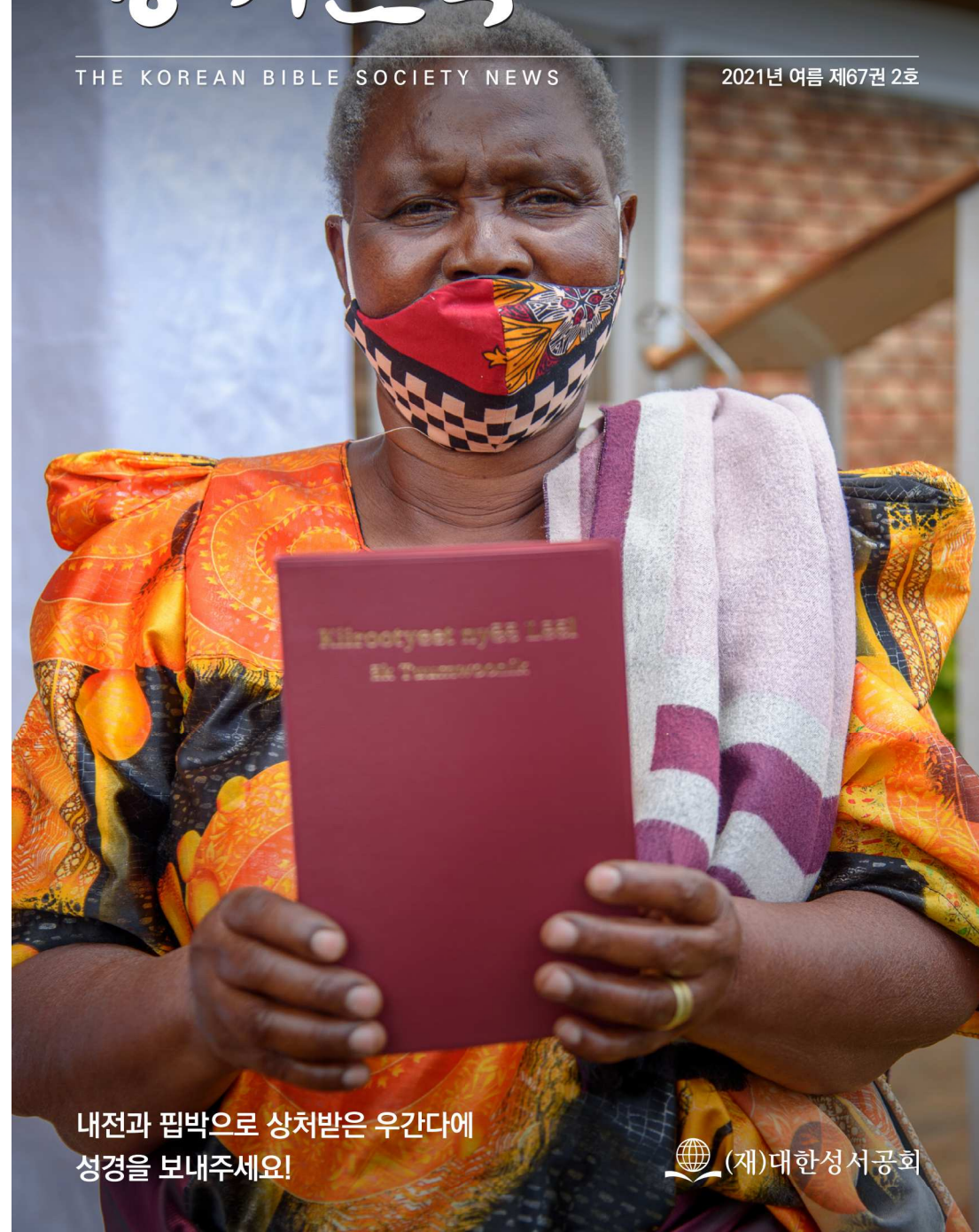
데리와 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1년 여름 제67권 2호



내전과 핍박으로 상처받은 우간다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변화가 시작되는 곳

130년 전 한글 성경이 전해진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막은 예배당이 되고,
노름꾼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이 만들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성서한국

2021 여름 제67권 2호

02 포토에세이

나의 마음을 채워시는 하나님

04 2021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신앙과 선교의 바탕이 되는 성경

06 커버스토리

내전과 핍박으로 상처받은 우간다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10 2021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7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2 나의 삶을 바꾼 말씀

'여호와 라파' 우리의 고백입니다.

14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중남미 지역을 위한 기도

16 새로운 번역 성경

다매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번역 성경
— <새한글성경> 시편을 중심으로 —

20 후원 이야기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 2020 세계 성서 번역 현황
- 제135회 정기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1년 6월 30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 성경을 후원받은 쿤(태국)



나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쿤 카나나트 나사이요(Khun Kananat Nachaiyo)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상처는

하나님을 믿으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족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워주셨습니다.”

19살이 된 쿤은 태국 젊은이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태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켰듯이,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신앙과 선교의 바탕이 되는 성경”

권익현 사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 제한과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성서 보급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상당수 자매 성서공회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성서용지 등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해외 성서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매 성서공회들과 성서 제작을 위한 협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해외 성서 보급 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6개국 미자립 성서공회에 186,948부의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101,503부가 감소한 159,823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115,054부가 보급되어, 지금까지 본 공회를 통해서 10,706,353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성경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 성경 13,156,425부를 포함하면, 개역개정판 성경은 총 2천3백8십6만여 부가 보급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성경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리히성경해설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77개 나라에 80개 언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541부가 감소한 1,480,060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1억 8천5백여만 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매 성서공회들의 성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과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및 제본 개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과는 별도로, 금년 상반기에 총 36개 나라에 186,948부의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기니 니제르 베냉 차드 등 19개국, 중남미의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등 10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국, 유럽 중동 지역의 세르비아 알바니아 등 6개국 성서공회에 성경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 주셔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억 8천여만 원이 증가한 총 25억여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전 세계 미자립성서공회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성서 보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선교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공회에서 기증하는 성경이 해당 지역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선교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한글성경〉(가칭) 번역

2012년 12월,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성경〉(가칭)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기초 번역과 1차 번역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문장 검토는 80%, 기초번역자들의 재검토는 61%, 최종 번역 검토는 47%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과 함께 다양한 매체로 볼 수 있는 본문 해설, 그림, 사진, 지도,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가칭)을 출판하고, 아울러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35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1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국내성서 보급

159,823부의
성서 보급



해외성서 보급

77개 나라에 80개
언어로 1,480,060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



해외성서 기증

36개 나라에
186,948부의 성서 기증
(코로나19 성경 기증 포함)



후원 헌금

약 2억 8천여만 원이
증가한 25억여 원

내전과 핍박으로 상처받은 우간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 성경기반 트라우마 치유에 참여한 엘리자베스(우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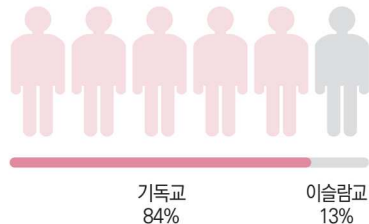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기반한 트라우마 치유 시간에 던져진 질문에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 전체 인구의 약 84%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내전은 나라 전체를 무너뜨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전의 피해 속에 있습니다. 내전을 직접 목격한 어린이들, 난민이 되어 여전히 떠도는 사람들, 불안한 치안 속에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간다 종교 비율



내전의 상처

우간다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종족 분쟁은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반군은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납치해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은 반군을 피해 난민이 되었습니다. 소년병 생활을 했던 어린이들은 아직까지도 마약 중독과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난민캠프의 모습

반군 지도자인 조셉 코니가 해외로 도피하며 내전은 사그라들었지만 전쟁이 남긴 가난과 상실은 여전히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성경이 없는 기독교인

우간다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온 가족이 하루 2천원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만 원에 가까운 성경 값은 넘기 어려운 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없이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성경 없이 귀로만 들은 말씀과 지역 전통이 혼합되어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슬람의 위협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만 적은 숫자였던 무슬림들은 최근 그 세력을 넓히고, 나아가 기독교인들에게 테러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주위의 무슬림들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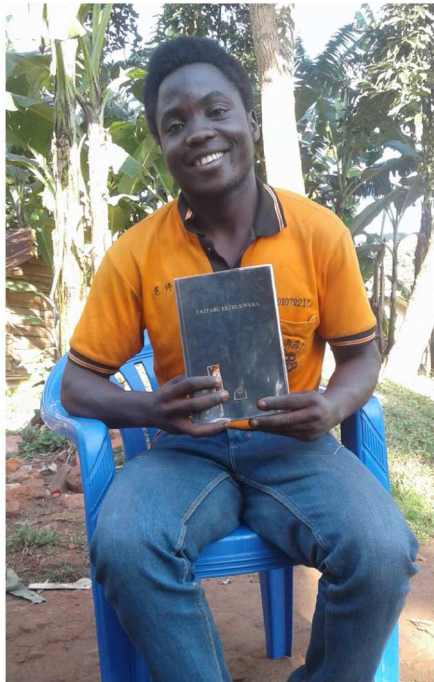
우간다 교회에서는 내전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간다성서공회에 지속적으로 성경을 요

청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성서공회가 보급하는 성경은 적은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골 지역 가정에 전달되기도 하고 내전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 난민 캠프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당장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침과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 성경기반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



▲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가브리엘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저는 친구의 전도로 어머니 몰래 교회에 갔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진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과 달리 저는 성경이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새신자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마침내 저의 첫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쁨으로 성경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신 어머니는 결국 제 성경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후에 성서공회에서 기증해 준 성경을 다시 받았습니다. 여전히 제 신앙은 핏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소망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 가브리엘(Gabriel Tamale)

우간다성서공회는 내전,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등 다양한 상황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치유되어 갑니다.

저는 테러단체(ADF)의 공격으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의 피난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괴로워했고,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저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던 중,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성경이 없어 막막해하는 저의 상황을 성서공회에 전했고, 마침내 간절히 기다렸던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성경을 읽고 기도하였고, 제게 다시 평안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 제인(Jane Rose Kabugho)

우간다에는 여전히 가브리엘과 같이 무슬림 가정에서 개종하여 핏박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제인과 같이 테러와 내전의 위협으로 트라우마 속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간다의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간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선물 받은 성경을 읽고 있는 제인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간다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7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짧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1.4.30 기준)



아메리카
1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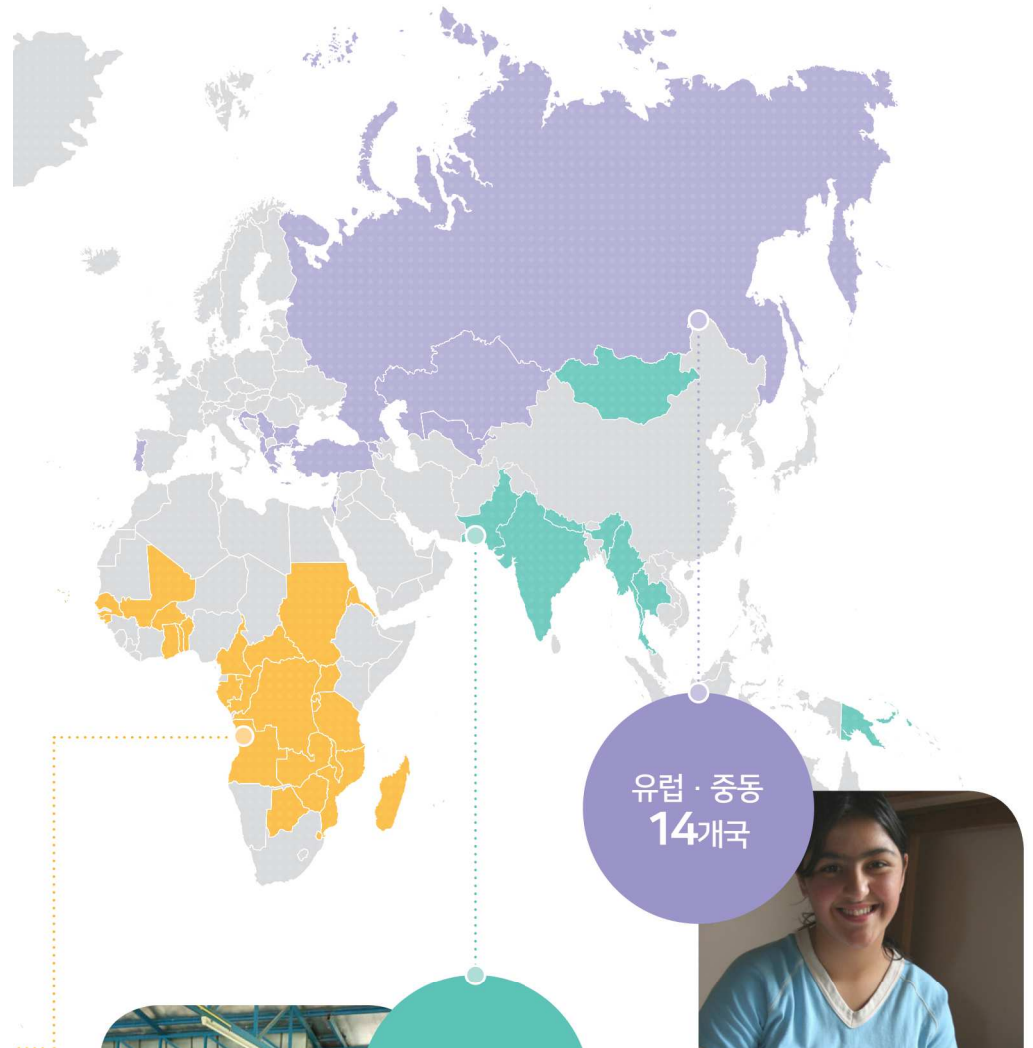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29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남수단,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세네갈,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 중동
14개국



그리스,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포르투갈

아시아 태평양
8개국



남태평양, 네팔,
몽골, 미얀마,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여호와 라파’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서부 내륙에 위치한 작은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빈국이며, 문맹률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습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부르키나파소에는 몸도 마음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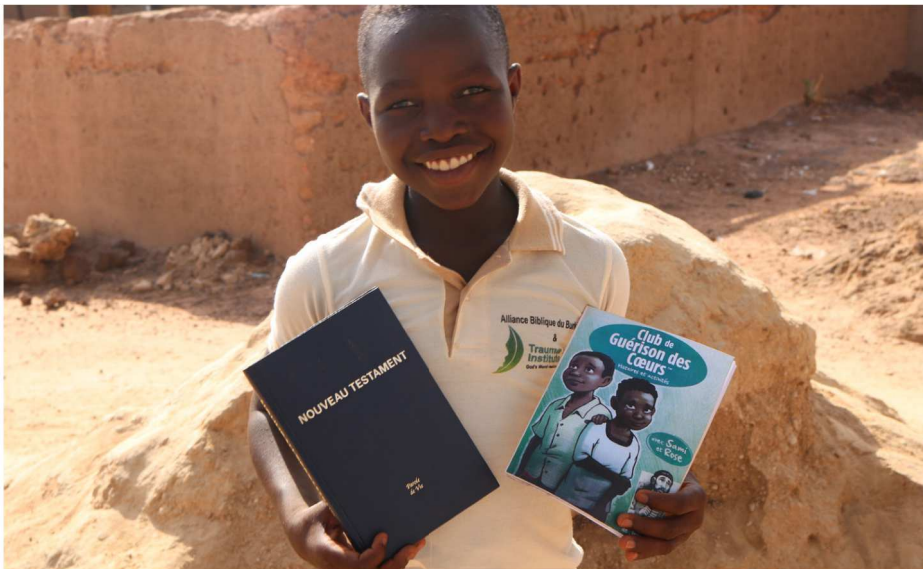
한순간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 알코올과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성적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여호와 라파 :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와 청소년들이 겪은 아픔은 트라우마가 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트라우마로 괴로워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삶의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 성경을 들고 있는 파브리스



▲ 성경을 들고 있는 마사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는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역자를 통해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성경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파브리스(Fabrice)의 간증

저는 친구들을 때리고 놀리는 것을 즐기곤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울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반 친구들을 사랑하는 법과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슬픈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선물받아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갈 때 선물로 받은 성경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옛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로 채워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마사(Marth)의 간증

저는 제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용서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저를 아프게 한 친구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며 교회의 청소년 합창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 받은 성경을 매일 밤 읽으면서 제가 읽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남미 지역을 위한 기도

① 볼리비아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리비아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폭력의 피해로 고통을 받는 볼리비아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② 콜롬비아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콜롬비아의 피난민들과 베네수엘라에서 피난해 온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기관과 교육자들이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기반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 중인 성경 번역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번역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③ 페루

페루 아푸리막 지역의 케추아(Quechua)족과 마치겐카(Matsigenka)족 언어의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의 빵'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페루성서공회가 성경 보급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페루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④ 우루과이

우루과이성서공회의 성경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 국민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공회의 성경 보급 사역을 통해 각 지역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언어와 형식으로 성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⑤ 베네수엘라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베네수엘라성서공회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후오토야(Huottöja)족, 쿠리파코(Curripaco)족, 페몬(Pemón)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번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다매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번역 성경

— <새한글성경>(가칭) 시편을 중심으로 —

박동현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구약 책임번역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다매체 시대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주로 젊은 세대를 염두에 두고 여러 해 전부터 <새한글성경>(가칭)을 번역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새로운 점을 시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새한글성경>은 원어 성서에 이전보다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1) 인쇄된 겉모습이 눈으로 보기에도 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시편처럼 시(詩)라는 사실이 분명한 본문은 그 점이 드러나도록 줄을 바꾸어 가며 번역했습니다. 시편 첫 절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복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는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2)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을 되도록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시편 3장 7절을 봅시다.

일어나십시오, 오, 여호와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이 치셨습니다, 내 모든 원수의 뱀을요.
그릇된 사람들의 이빨을 주님이 부러뜨리셨습니다.

상반절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을 앞세우고 나서야 하나님을 부릅니

다. 사람이 무엇을 부탁할 때 보통은 부름말을 앞세운 뒤에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는 보통 상황에서 점잖게 하는 기도라면 “일어나십시오, 오, 여호와님!”은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원문의 어순이 번역문에 반영되면 원문의 분위기까지 전달됩니다. 독자들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주님이 ‘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서 주님이 그것을 ‘부러뜨리셨다’고 합니다. 한데 묶어 보면, 주님이 치시고 부러뜨리셨는데, 그 대상은 ‘내 모든 원수의 뱀’과 ‘그릇된 사람들의 이빨’이라는 것입니다.

3) 시편에는 표제도 절 수에 넣었습니다. 또 표제를 본격적인 시와 마찬가지로 존중하여 괄호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제’ 다음에 한 줄을 띄어 시 본문과 구별했습니다. 시편 5장 1-2절을 봅시다.

1)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피리 반주. 노랫말(시). 다윗의 것.

2)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 여호와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내 한숨짓는 것에.

2)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내 부르짖는 소리를,
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 내가 기도하니까요.

1) 히브리어 성서를 따라 여기서부터 1절로 적음
2)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2절
3) 2-12절이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3-13절

2. <새한글성경>은 성서학의 최신 연구 결과와 최신 외국어 번역본들을 최대한 활용한 번역 성경입니다. 시편 1장 6절을 봅시다.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올바른 사람들의 길은.
그릇된 사람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과 ‘그릇된 사람’을 이전 한글 번역본들에서는 각각 ‘의인’과 ‘악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올바름’과 ‘그릇됨’은 사람의 윤리적인 잣대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학의 최신 연구 결과와 최신 외국어 번역본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이익을 폭력을 써서 기어코 얻어 내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입니다.

3. <새한글성경>은, 원문이 길 때 여러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한 성경입니다. 한 문장이 16어절, 50글자를 넘지 않고, 한 문장에 한 가지 뜻을 담도록 번역한다는 원칙에 따라 번역한 성경입니다. 요즘에는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화면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을 더 좋아합니다. 글도 짧게 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시편 첫머리부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시편 1장 1-3절이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죽 이어져 있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 어법에 맞추어 번역하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집니다. <새한글성경>에서는 시편 1장 1-3절을 여섯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했습니다.

4. <새한글성경>에는 새로운 번역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1) 앞 2번에서 알아본 '그릇된 사람'과 '올바른 사람'은 새 번역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처럼 쉬운 한글 표현을 새 번역어로 쓰면서 그 내용의 차원을 한껏 높여서 거룩한 뜻을 담은 전문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2)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를 시편 8장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내가 보곤 하거든요. 주님의 하늘, 주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요.

달과 별들도요. 주님이 마련해 두신 것들입니다.

4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간이 무엇이라고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5 주님은 그를 조금 모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움과 존엄함이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6 주님은 그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두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그의 발아래에.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시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을 새기며 감격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6-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사귀실 만한 상대로,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이르도록 높이셔서 임금처럼 온 누리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장 5절에서 한자말이지만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는 '존엄함'이라는 새 번역어를 씁니다. 독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3) 시편 4장 7절에서도 새 번역어가 하나 눈에 띄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기쁨을 내 마음에,
곡식과 햇포도즙이 많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햇포도즙'으로 번역된 원어 '티로쉬'는 원래 발효시키기 위해 짜 놓은 포도즙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원어가, '포도주'를 뜻하는 일반적인 원어('야인')와 나란히 쓰일 때는 '새 포도주'로 번역했고(호 4:11), '곡식'과 '식물성' 기름'과 함께 나올 때는 그냥 '포도주'로 번역했습니다(신 7:13). 이처럼 <새한글성경>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원어는 서로 다르게 번역하지만, 같은 원어도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5. <새한글성경>은 개별 본문의 특성에 맞추어 여러 가지 마침꼴을 썼습니다.

1) 원문의 어순을 따라 도치문을 많이 쓰면서 한 줄의 앞부분은 '~입니다'를, 뒷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읽은 시편 4장 7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2) 한 편의 시 안에 시인의 말 상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면 문장의 마침꼴도 그에 맞추어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6. <새한글성경>은 괄호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1) 시편 3장 2절의 '셀라' 다음의 괄호 안에 칠십인의 번역어인 '악기의 간주'를 적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원어 '셀라'의 뜻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어를 우리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 시편 3장 1절의 '노랫말' 바로 뒤에 '시'라는 전통 번역어를 괄호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새 번역어가 낯설 경우에는 독자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3) 위 5번의 2)의 경우에도 시 한 편 안에 말의 상대가 다른 부분을 각각 '기도'와 '혼잣말'과 '사람에게 하는 말'로 괄호 안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7. <새한글성경>은 성서학의 최신 연구 결과와 성서 번역의 최신 경향을 반영하면서 새 길로 나아간 성경입니다.

1) 다매체 시대 상황에 맞추어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2) 원문의 어순을 살려 원문의 강조점을 더 잘 드러내고, 3) 새 번역어를 사용하여 원문 이해의 폭을 넓히고, 4) 문학 유형에 따라 여러 마침꼴을 썼습니다. 이처럼 원문에 더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



▲ 기증하는 성경 앞 김천제일교회 성도들

구원의 빛 성경

김천제일교회 - 〈불어 성경〉 9,400부 기증

2021년 3월 23일, 김천제일교회(조병우 목사)의 후원으로 카메룬에 〈불어 성경〉 9,4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식에서 조병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카메룬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고 성령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룬성서공회 록 그노와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많은 어려움에도 여러분의 후원이 있기에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오시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후원하신 성경이 카메룬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김천제일교회에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은 전체 국민 중 53%가 기독교인이지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개종을 요구하는 이슬람의 포교로 카메룬 젊은이들이 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방화, 납치, 살해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간절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불어 성경〉 9,400부는 나날이 이슬람의 박해가 심해지는 카메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 카메룬 사람들이 종교적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모잠비크에 후원하는 성경 앞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

성경이 전해지는 땅에 복음이 가득하기를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 - 〈세나어 신약〉, 〈쇼나어 성경〉, 〈치체와어 성경〉 8,500부 기증
최정희 권사, 문현선 집사, 문현진 집사 - 〈스페인어 성경〉 688부 기증

2021년 5월 6일, 김영례 권사와 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모잠비크에 〈세나어 신약〉 2,500부, 〈쇼나어 성경〉 3,000부, 〈치체와어 성경〉 3,000부를, 최정희 권사, 문현선 집사, 문현진 집사의 후원으로 과테말라에 〈스페인어 성경〉 688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식에서 김영례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최정희 권사님 가정과 함께 모잠비크와 과테말라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이 전해지는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모잠비크성서공회 발렌티 세코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희망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받을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드러냈고, 과테말라성서공회 사울 소사 총무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성경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세나어 신약〉 2,500부, 〈쇼나어 성경〉 3,000부와 〈치체와어 성경〉 3,000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통받는 모잠비크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스페인어 성경〉 688부는 과테말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범죄의 위험과 유혹에서 떠나 이 나라에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성경 학교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

서현교회 - 〈스페인어 성경〉 8,391부 기증

2021년 5월 20일, 서현교회(이상화 목사)의 후원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스페인어 성경〉 8,391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상화 목사는 “도미니카를 향해 떠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도미니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대를 전하였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성서공회 카르멘 체코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을 후원해 주신 서현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서현교회에서 후원하는 성경이 도미니카의 가난한 기독교인과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전해져서, 도미니카 기독교인들과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서현교회에 감사사를 전하였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인구의 절반은 평균 임금의 20%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적 범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교회에서도 이들에게 나눠줄 성경이 부족해 이들에게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도미니카공화국성서공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교회에 성경을 전달하고, 어린이들이 성경을 기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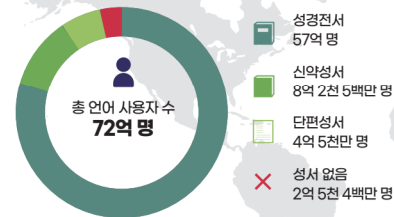
서현교회에서 후원하는 〈스페인어 성경〉 8,391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도미니카공화국에 보내는 성경을 두고 기도하는 서현교회 성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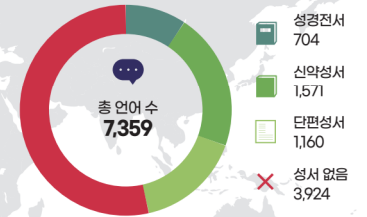
1 2020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코로나19 속에서도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서를 가지고 있나요?



성서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보급되고 있나요?



▲ 2020 세계 성서 번역 현황 인구/언어 통계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2020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7억 7백만 명이 사용하는 66개 언어로 성서 번역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성경전서는 총 7,359개의 언어 가운데 70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 전 세계 성경 번역은 고무적인 결과를 이루어냈다.

세계 2차대전 후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처음 조직된 1946년에는 성경전서로 번역된 언어가 200개도 채 되지 못했고, 신약성서는 230여 개 언어, 단편성서는 620개의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었다. 7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성서로 번역된 언어 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ProgressBible 기준)

전 세계 57억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8억

2천5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도 4억 6천3백만 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존재하는 7,359개 언어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성서가 전혀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며 총 15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Michael Perreau) 총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우리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완성된 성서 번역 하나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소망과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의 폭풍우를 헤쳐 나갈 때 성경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너무나 시급한 과업인 이유입니다.”라며 성서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제135회 정기이사회 개최

▲ 제135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대한성서공회 제135회 정기이사회가 2021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이천희 목사(부평제일감리교회)가 “평생 지키기 힘들었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황순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재곤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조성봉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이정익 목사, 김경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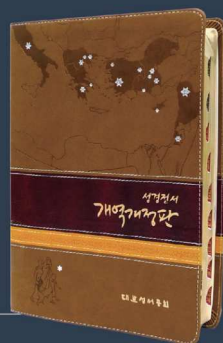
이용호 목사, 곽철영 장로, 최규완 장로가, 감사로는 송영훈 장로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신 임원을 인선하여 이사장 이정익 목사, 부이사장 양병희 목사, 서기 김순권 목사, 회계 김경원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김현배 목사, 김동권 목사, 정하봉 목사, 이용호 목사, 이선균 목사, 손인웅 목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김호웅 상임이사를 재선임하였으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재개정하도록 허락하였다.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의 필요성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우리은행 1005-702-311166
농협은행 355-0025-0990-53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신한은행 140-009-909678
수협은행 033-01-085327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